

성전

엡 2:12~22, 고전 3:16~17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43장 (교회의 참된 터는)

오늘 배울



1.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2.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왕상 8:29)

너희가 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6)



을 이해하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에덴동산 이후 계속적으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 시킨 후 그들 중에 거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B.C.966년 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멸하셨는데 이 때에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을 재건하였으며 훗날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더욱 크고 화려하게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헤롯 성전도 로마 군에 의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성전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선지자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참된 성전은 거듭난 사람들, 즉 교회이며 우리 각자는 이 성전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실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1~22)

in whom the whole building, being joined together, grows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 in whom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for a dwelling place of God in the Spirit (Eph 2:21~22)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구약시대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설명해 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기 위한 곳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를 다음의 말씀을 찾아 빈 칸을 채워봅시다.

벧엘 - 성막 - 솔로몬 성전 - 스룹바벨 성전 - (요 2:21)
- (고전 3:16)

- ②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흔히 교회당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여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빈 칸을 채워 봅시다.

- 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행 17:24)
- ②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후 6:16)

3

구원받은 각 사람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완성되는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빈 칸을 채워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 있고 ()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고후 6:17)

4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이 버리기 힘든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죄를 버릴 수 있을지 실천 방법을 적어 봅시다(히 12:1, 4).

– 버리기 힘든 죄 :

– 죄를 버리기 위한 실천 방법 :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레 14:40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월

왕상 8:29

화

요 2:16

↑

고전 3:16

↑

고후 7:1

↑

엡 2:22

↑

엡 3:6



물과 물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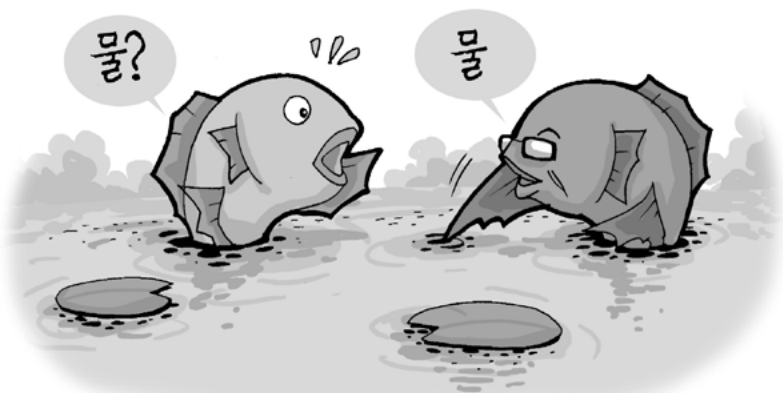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고기들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 하며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 물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늙은 물고기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라.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온 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으며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숲속에 들어가면 산 전체를 모르고, 바다 한 복판에 떠 있는 표류자가 그 바다를 모르듯 인간은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행 17:24~25)



질문 있어요~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묘사되는 성전은 어느 때의 모습이며, 그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 40장부터는 성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한 이후로 역사상 성전이 두 번 세워졌는데, B.C. 516년 경 완성된 유대성전과 신약 시대 헤롯이 보수한 성전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에스겔이 예언한 세부 설계와 맞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그곳으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라올 것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는 에스겔서에 묘사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여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인데 왜 이러한 제사를 천년왕국시대에 다시 드리냐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히 10:18), 이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듯이 천년왕국에서는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역경과 고난이 함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위로가 되고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는 동역자간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거하시실만한 성전을 이루는 과정이며, 머지않아 이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실 것입니다.

● 감옥에서의 전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유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실의에 빠지지 않고 감옥에서조차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수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 인내와 순종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서 경계 되는 이유없는 고난에 낙담하지 말고 바로 이해는 할 수 없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 복음의 동역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서로 넘어지지 않고 더욱 더 힘입게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의 귀중함은 비단 사도시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동역자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기 위해 틈을 타고 있습니다. 마귀의 꾀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동역자간에 위로와 더불어 서로 존경하며 섬기는 일이 필요함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 성전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만들어진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 시대 성도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거하시실 성전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전을 구성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리 활동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묵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묵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기도

126

